

2023. 7. 24.(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7월 2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서울역사박물관 도시유적전시과

경영지원부장	기봉호	724-0105
--------	-----	----------

도시유적과장	이승헌	724-0235
--------	-----	----------

담당자	류위남	724-0186
-----	-----	----------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8쪽

누리집(메뉴)

<https://museum.seoul.go.kr/>  
상단 메뉴배너 <전시>→<기획전시>

##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 <우리가 만나던 그곳, 종로서적> 개막

- '23.7.21.(금)부터 '24.3.17.(일)까지 공평도시유적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료 관람
- 한국 현대 서점사를 대표하던 서점이자 그 시절 서울 시민들의 대표적 약속장소였던 옛 종로서적(1948~2002)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떠올려보는 전시
- '22년의 <종로서적> 조사연구 사업과 '시민 공모전' 성과와 종로서적에서 처음으로 독자들과의 만남을 가졌던 은희경 작가의 인터뷰 영상을 함께 전시
- 기획전 연계 학술대회 <종로서적과 한국 현대 서점 문화사> 7.21.(금) 진행

-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김용석) 분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는 지난 7.21.(금)에 한국 현대 서점사에 큰 획을 그었던 서점이자 그때 그 시절 종로의 대표적인 약속장소였던 '종로서적'의 추억을 돌아보는 <우리가 만나던 그곳, 종로서적> 기획전시가 개막되었다. 전시는 내년 3.17.(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 종로서적은 1948년의 '종로서관'을 전신으로 하여 1963년에 '종로서적센터'로 개점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대형서점으로 많은 독서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또한 종로서적은 단순히 서점만이 아니라 추억의 약속장소로도

유명하였던 만큼 2002년 월드컵의 열기 속에서 부도로 폐점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다.

“안할말로 그까짓 축구공이 어느 골대로 몇 번 들어간들 무슨 상관이라, ... 종로에 우뚝 서서 이 땅 청년의 자주와 자존을 배양하던 종로서적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월드컵 첫 승리!’ 하필이면 48년만에 민족의 염원을 이룩하여 새 역사를 창조했다는 바로 그날 접한 참혹한 소식이다. 그러나 종로서적의 죽음은 어쩌면 현충일의 사이렌보다 장엄한, 한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조종(弔鐘)인지도 모른다.”

- 안경환(전 국가인권위원장·서울대학교 법대 명예교수), 〈월드컵과 종로서적〉,  
《조선일보》 2002.6.7.

- 이번 전시는 '22년 공평도시유적전시관 〈종로서적〉의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밝혀진 ‘종로서적이 가진 한국 현대 서점사적 의의’를 조명하고,
- '22년 8월~12월까지 진행하였던 ‘옛 종로서적과 관련한 사연과 자료 공모전’을 통해 만나게 된 종로서적에 종사하였던 분들과 종로서적의 고객이었던 시민들의 기억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전시하였다.
- 또한 종로서적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였던 〈작가와의 대화〉에서 처음으로 독자와의 만남을 가졌던 은희경 작가의 인터뷰와 오랜 기간 종로서적에서 일했던 신영옥 씨와 이선우 씨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 전시 구성은 〈1부. 서울의 오래된 서점, 종로서적〉, 〈2부. 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3부. 꿈을 키워준 나의 일터〉, 〈4부. 사람과 사랑이 만나는 곳〉 이렇게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 〈1부. 서울의 오래된 서점, 종로서적〉에서는 근현대의 대표적 서점거리였던 종로의 옛 서점들을 살펴보고, 그 중 현대까지 이어져 최초의 현대식 서점을 이루었던 종로서적의 역사를 살펴본다.

“종로서적이 처음 개점할 때 이름은 종로서관이었다. 아마 숙명여고 2학년 때였을 것이다. 일본어 번역본을 통해 문학의 세례를 받은 문학소녀들에게 그곳은 꿈의 궁전이었다. 처음 보는 대형서점이었다.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렸다. 어마어마하게 큰 매장이 우리 말로

된 책으로 꽂차 있다는 건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었다.”

-박완서, 『두 친구』, 『호미』, 열림원, 2014.

- <2부. 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에서는 책이 가장 유력한 지식과 정보매체였고, 독서·출판의 사회적 인프라가 전체적으로 부족했던 그 시절, 종로서적은 단순한 책 판매점이라기보다 도서관이나 문화정보센터의 역할을 하였고 독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독서 문화를 이끌어 나갔음을 당시의 자료와 구술로 보여주고 있다.

“종로서적이요? 공부를 하게끔 동기를 계속해서 부여해 주는 장소라고 그럴까? 거기 가면은 책은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책들이 뭐가 있고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분야가 무엇이고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지식의 늪에서 헤맬 때 여기 가면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장소였어요.”

- 종로서적의 학생 독자, 김민우

- <3부. 꿈을 키워준 나의 일터>에서는 종로서적이 ‘종로대학’의 일부이자 ‘서점 인재 사관학교’이며, 우리나라 서점 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던 종로서적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처음 발령을 받고 만난 선배들이 다들 ‘종로서적은 단순한 서점이 아니다, ‘종로대학’이다. 자기가 맡은 파트에서 ‘박사’ 소리 듣게끔 일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전 종로서적 직원, 이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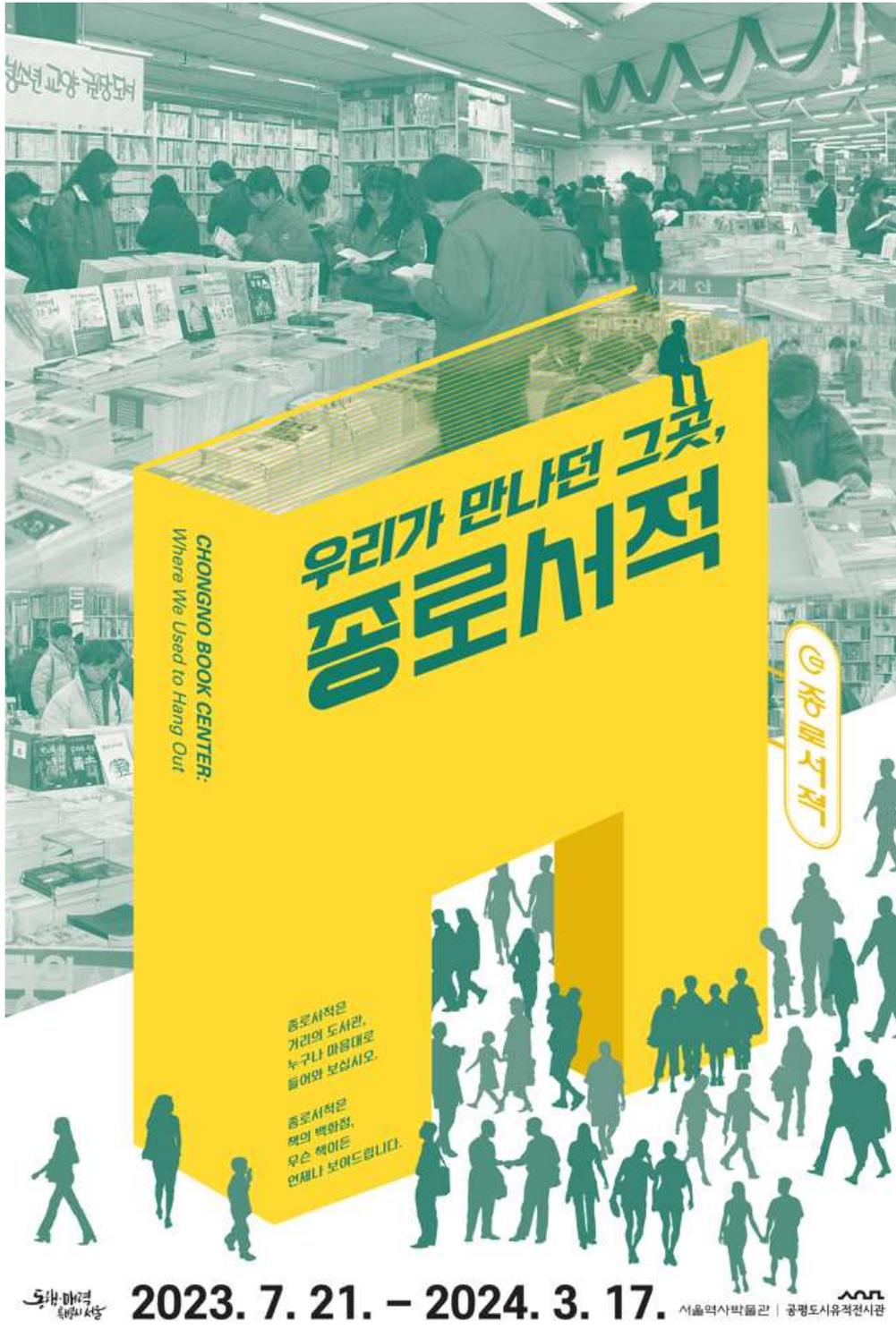
- <4부. 사람과 사랑이 만나는 곳>에서는 당시 젊음의 거리였던 관철동으로 가는 시작점이었던 종로서적 1층 만남의 장소 모습과 추억 속 관철동 모습들을 사진을 통해 만날 수 있다.

토요일 저녁의 종로서적 입구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빼곡했다. 그들은 어디선가 자신의 이름이 들려오기를, 혹은 자신도 누군가의 이름을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인파로 가득한 종로 거리를 좌우로 두리번거렸다. 기다리던 사람이 누구든, 친구이든, 애인이든 가족이든, 그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환한 표정으로 웃으며 층계를 내려갔다. 종로서적 입구에 서서 목을 빼고 늦게 오는 친구를 기다려본 사람은 그렇게 친구나 애인을 먼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알 것이다.

-김연수,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문학동네, 2007년

- 특히 이번에는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교육연구단과 공동으로 기획전시 연계 학술대회 <종로서적과 한국 현대 서점 문화사>도 마련하였다. 학술대회는 21일(금) 공평도시유적전시관 교육실에서 진행했다.
- 또한 기획전시 연계 특별 강연도 8월 18일(천정환 성균관대 교수)과 8월 25일(이용희 성균관대 강사)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종로서적과 한국 현대 서점 문화사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참가 접수는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yeyak.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 발표는 8월 11일이다.
- 서울역사박물관 김용석 관장은 “이번 전시를 위해 옛 종로서적에 종사 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여러 시민들께서 그들의 기억과 추억이 담긴 물건과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한 “이 전시가 여러분의 ‘종로서적’을 추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평일 및 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 자세한 정보는 서울역사박물관 누리집(museum.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724-0186, 0135)

[붙임 1] 전시 홍보 포스터



[붙임 2] 주요 전시유물 사진 및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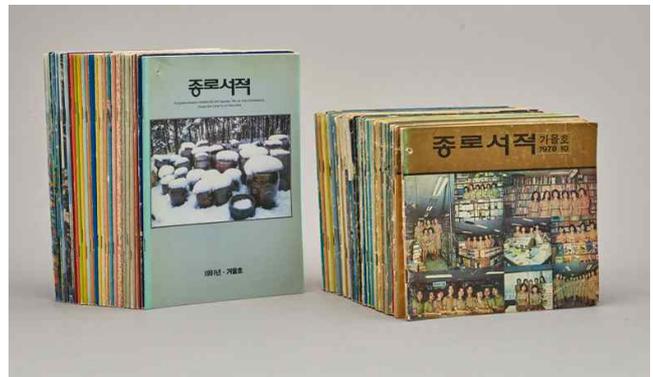
대한기독교서회 건물에 있었던 종로서관 모습  
1954~7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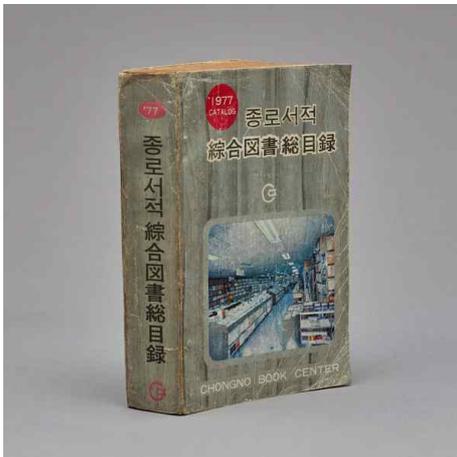
1970년대 종로서적 모습  
《내외 출판계》 1976년 12월호, 강성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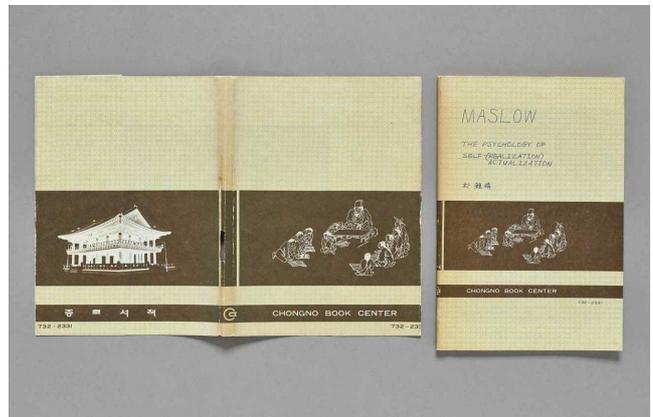
1987년 종로서적 본·신관 모습  
1987년, <종로서적 안내지>, 전세영 소장



사보(社報)이자 수준 높은 독서저널이었던 《종로서적》  
1978~1992년, 조유성 소장



종로서적 종합도서총목록  
1977년, 이동현 소장



종로서적 책 포장지와 포장된 책  
1980~90년대, 장덕연·박상준 소장



**종로서적 본관에서 신관으로 넘어가는 계단의 모습**  
**1988년, 전세영 소장**  
 종로서적 '벨기에 만화' 도서전시회 모습이다.



**종로서적 외국도서 전시회 삼성반도체통신종합연구소**  
**1983년, 전세영 소장**  
 최신의 연구성과물인 외국학술서적과 저널을  
 전국의 연구소와 대학을 돌며 전시하였다.



**종로서적 외국서적부에서 구입한 외국서적들**  
**1970~80년대, 최종현 기증**



**종로서적의 <금주의 베스트셀러> 코너 모습**  
**1992년, 이철지 소장**



**종로서적의 <작가와의 대화>에 참석한 이문열 작가**  
**1981년, 조유성 소장**

●●●●●●●●●●  
**제127회, 128회 작가와의 대화**



제127회 작가와의 대화에 최근 「새의 선물」을 출간하여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은희경 씨가 초대되었다. 1월 27일(토) 오후 4시 7층 휴게실에서 열린 이날 작가와의 대화에서 초대작가 은희경 씨는 자신의 작품과 관련된 얘기 및 문학관 등에 대해 독자들과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2월 28일 작가와의 대화에 한국과 일본의 정신과 의사의 신세대를 위한 긴급 대담 형식으로 「뒀는 신세대 숨는 신세대」의 저자 와다 히데키와 이시형 박사가 초대되었다. 와다 히데키는 최근 정신의학 이론 등을 발표한 일본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며 이시형 박사는 고려병원 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강북 성심병원 신경 정신과 부장으로 재직중이다.

**<작가와의 대화>에 참석한 은희경 작가의 기사**  
**《종로서적》 1996년 봄호, 조유성 소장**



은희경 작가의 인터뷰 영상



**고객 감동** 최근 종로서적은 대독자서비스의 일환으로 「책을 찾아드립니다」 코너를 설치했다. 이 코너에서는 독자들이 문의해 오는 사항을 컴퓨터로 조회한 후 관련 서지사항과 도서 비치장소를 메모로 전해준다. 이로 인해 독자들은 한층 더 편리하고 쉽게 책을 찾아보게 됐다. <사진 김경복기자>



젊음의 거리, 관철동 모습  
1988년, 서울시정사진

종로서적 <책을 찾아드립니다> 서비스 개시 기사  
《독서신문》 1996년 3월 18일자, 박명주 소장  
꾸준히 우리 출판계의 모든 도서의 정보를 정리하고  
축적하여 전산화한 종로서적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였다.



“연일 수만명 약속장소로 명성이 높음” 종로서적 입구 모습이 실린 신문기사  
《일간스포츠》 1992년 11월 26일자, 이철지 소장